

始燈日과 電氣의 날

The First Electrical Lighting and the Electricity Day



崔 漢 燮

前韓國電氣百年史 編纂委員

1. 修正된 초창기 電力史

그동안 韓電에서 편찬작업 중이던 「韓國 電氣 百年史」가 지난 해 말에 발간되었다. 이 史書는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전기 100 년간의 역사를 체계화하여 集大成하였다는 데 관계인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이 특히 지금까지 왜곡되고 왜전되어 왔던 초창기 電力史를 새로운 史料에 의거 바로잡아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位相을 再定立할 수 있었던 것은 획기적인 成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韓國電氣百年史」는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초창기 電力史를 전면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지금까지 '전달불'이라고 하여 웃음거리로 내려 깔았던 경복궁의 전등설비가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우수한 모델플랜트였다는 사실과 또 제 2전등소의 설치 운영도 이번에 밝혀졌다.

또한 종전에 高宗과 미국인 콜부란 등의 합작 기업으로 알려졌던 한성전기회사가 高宗의 단독 출자로 설립·운영된 순수한 民族企業이라는 사실이 관명됨으로써 學界의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치루었던 債務紛爭 역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중의 하나이다.

「韓國電氣百年史」는 이밖에도 電車의 개통과 營業電燈의 개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의 通說을 뒤엎고 새로운 내용의 기록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電氣百年史」는 아직도 극복하지 못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나라 電力史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 보완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이 기회에 「韓國電氣百年史」의 발간을 계기로 제기된 始燈日과 '電氣의 날'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를 고찰하여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한다.

〈丑〉 초창기 電力史의 修正內容

항 목	수 정·보 완 내 용	중전의 通說
경복궁 전등설비의 규모 및 성능	16족광의 白熱燈 750개 점등이 가능한 시설.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우수한 모델플랜트로서 도입가격은 24,500달러.	규모에는 정설이 없었고 '진달불'이라고 와전되어 왔음.
始燈日의 考證	새로운 史料들에 의하여 1887년 3월 6일로 추정.	정설이 없었음.
제 2 전등소의 설치유형	1887년 3월 경복궁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다음 이 시설이 노후화함에 따라서 1894년 5월 30일 舊國立中央博物館 자리에 제 2 전등소를 설치, 呂德宮에도 전기를 공급함. 설비는 16족광 백열등 2,000개를 점등할 수 있었고 도입가격은 47,000달러	기록이 없었음.
한성전기회사의 설립	高宗皇帝 單獨出資의 순수한 民族企業으로 1898년 1월 26일자로 허가 설립. 자본금 韓貨 30만엔.	高宗과 콜부란, 모스트위크 등의 합작기업으로 1898년 1월 18일자로 허가 설립.
電車의 開通	1899년 5월 4일에 東大門~新門路간에서 개통.	1899년 5월 17일 (음력 4월 初 8 일) 개통.
營業電燈의 개시	1901년 6월 17일 경운궁(지금의 덕수궁)에 첫 공급.	1901년 6월 말 진고개(지금의 충무로)의 일본인 상가.
한성전기회사의 채무분규	콜부란 등에 대한 용역비의 체불로 한국정부와 이들 사이에 1902년 8월부터 2년 동안 심각한 채무분규가 발생, 광화문폭동과 같은 市民抗爭運動이 일어남.	기록이 없었음.

2. 始燈日에 관한 考證

「韓國電氣百年史」는 우리 나라 최초의 電氣點燈日이 될 경복궁 전등설비의 첫 점등을 1887년 3월 6일로 추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를 여기에서 다시 되풀이 한다는 것은 너무 번잡하므로 점등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일어난 사건들을 상황별로 요약 소개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電燈設備의 도착

미국의 에디슨 전등회사에 발주한 경복궁의 전등설비가 仁川에 도착한 시기에 관하여는 明治20년(1887년) 1월 16일자 朝日新聞(大阪版)

의 기록과, 1886년 9월 18일 미국 국무성에 제출한 경복궁 전등기술자 맥케이의 旅券申請書, 그리고 전등설비의 도입과 代金決済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미국인 상인 타운센드가 駐韓 美國臨時代理公使 포크에게 1886년 11월 9일자로 보낸 서신 등의 사료가 있다.

이들 사료를 종합하면

① 경복궁의 전등설비와 맥케이 등의 기술자는 일본 長崎에서 日本船籍의 教員에 바꾸어 탄 다음 1886년 12월(처음 예정은 11월말)에 仁川에 도착하였다.

② 인천에 도착한 후 맥케이 등은 먼저 서울에 입경하였고 전등설비는 1887년 1월 중순까지 인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 전등설비의 운송

이 전등설비가 인천에서 경복궁까지 운반되어 온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1894년 5월 30일에 완성된 경복궁 제 2 전등소 발전설비의 운송에 대하여는 1893년 알렌이 미국 국무성에 제출한 ‘朝鮮에서의 전기문제에 관한 보고서’ (Report on Electrical Matters in Korea)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들 발전설비는 인천에서 소형 선박에 옮겨 싣고 漢江을 통하여 龍山江港(지금의 龍山電子商街團地 자리)까지 운반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荷役한 다음 다시 荷馬車로 경복궁에 운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荷役作業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첫번째의 경복궁 전등설비도 이와 꼭 같은 경로를 거쳐 운반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전등설비가 경복궁에 도착한 것은 빨라야 1887년 1월말 전후로 짐작되고 있다.

◇ 전등설비공사

전등설비와 함께 인천에 온 맥케이 등은 전등설비보다 한 걸음 앞서 서울에 들어와서 곧 발전설비의 부지를 祚遠池 부근에 택정하고 그의 설치작업에 착수했다.

발전설비의 위치를 이곳에 선정한 것은 향원지와 인접하여 發電用水의 取水가 용이하고 주변의 공간이 넓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함과 동시에 궐내의 중심부에 해당하여 각 殿閣에 近距離配電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배전설비는 발전설비의 설치공사 일부가 끝난 다음에 발전시설과의 거리 및 殿閣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가설되었다. 따라서 전등의 점화도 전체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배전설비가 끝난 장소부터 차례로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가지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 최초의 점등

『韓國電氣百年史』의 편찬작업에서도 이 경복

궁의 전등설비가 언제 처음으로 점등하였다는 명확한 기록은 끝내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宣廳日記」 高宗 24년 2월 12일(양력 1887년 3월 6일)條의 기록은 경복궁의 始燈日과 가장 밀접한 史料로 평가되었던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更后, 李鵬烈奉政院直下標信, 祇受兵曹后, 開建春門, 出送右營使·後營使·海防使·日官一員·主事一員·刑曹書吏二名·電機所牌長二名後, 三更更即閉還納』

즉 “다시 뒤에 李鵬烈이 政院에서 直下한 標信(궁중에 급편을 전할 때나 궁궐문을 드나들 때에 標로 지니던 門標)을 받들어 兵曹에 祇受한 뒤 建春門을 열고 右營使, 後營使, 海防使, 日官 1명, 主事 1명, 刑曹書吏 2명, 電機所牌長 2명을 내보낸 다음 三更(밤 11시~오전 1시)쯤 문을 닫고 표신을 돌려 주었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電機所牌長 2명」이라는 대목이다. 電機所는 발전소를 가리키는 말이고 牌長은 원래 관청이나 일터의 人夫를 거느리는 우두머리인데 여기서는 맥케이와 또 한 사람의 전기기술자를 두고 한 말이다.

이들이 전기소에서 三更까지 근무하다가 퇴각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 시간까지 발전설비를 가동하여 경복궁의 전등에 점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電機所牌長의 深夜의 入退闕은 당연히 그 뒤에도 반복되었으나 宣廳日記에는 3월 6일條 이전이나 이후에는 전혀 그러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日記類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일들은 생략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미루어 電機所牌長들은 이날 처음으로 심야까지 점등작업을 하고 궐내의 政事が 끝난 다음에 당직하였던 官員들과 함께 퇴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앞의 여러가지 기록으로 미루어 경북중 전등설비의 始燈日이 1887년 3월 6일이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기록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3. ‘電氣의 날’은 再檢討되어야

◇ 現行 電氣의 날의 由來

현재 시행되고 있는 電氣의 날은 1966년에 제정되었다. 1900년 4월 10일 한성전기회사가 서울 종로 거리에 처음으로 전등에 점화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날을 電氣의 날로 제정하기까지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해방 이후 줄곧 電力難에 시달려 오던 우리나라가 1964년 4월 1일을 기하여 마침내 무제한 송전을 실시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은 이를 ‘電力解放’이라고 하여 기뻐하면서 크게 환영하였다. 그리고 電氣界에서는 높은 긍지와 함께 앞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희망과 의욕을 불태웠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고취되어 대한전기협회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기계의 일각에서는 電氣의 날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電氣의 날을 제정, 이 날을 기념함으로써 전기와 전기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이해를 높이자는 뜻이었다.

그리하여 대한전기협회와 한전에서는 1965년부터 電氣의 날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始燈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기의 날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모든 외국의 경우에도 그 나라 시등일을 기념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통례였다.

그러나 이 조사업무는 그렇게 쉽게 진척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등에 의한 시등일은 당연히 경북중의 전등설비에서 찾아야 하였

으나 그 당시로서는 자료가 너무나 빈곤하였다. 또 그때 추진 중이었던 第14回 國際에디슨 誕生日記念祝典(대한전기협회 주최로 1970년 4월 30일 거행)의 유치문제 관제로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었다.

그 결과 부득이 경북중의 시등일을 밝히는 일을 단념하고 당시 여러가지 사료에 의하여 확인된 한성전기회사의 시등일인 1900년 4월 10일을 民間始燈日로 보고 전기의 날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기계의 자체행사로 제정된 이 기념일은 그 뒤 1970년 12월 5일 商工部令 제 333호로 정식 전기의 날로 제정되었고 1973년 3월 30일 정부의 행사통합방침에 따라서 商工의 날로 통합 중단되었다가 1983년부터 다시 자체행사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電氣紀元과 一致해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전기의 날이 民間始燈日에서 由來를 삼아 온 그 자체가 전혀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電氣紀元을 경북중의 전등설비가 가동한 1887년으로 설정하고 이미 ‘電氣100年’이라는 국가적인 기념행사까지 치룬 실정이라면 전기의 날도 마땅히 경북중의 시등일을 그 연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경북중의 시등일에 대한 ‘明確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지만 이 문제는 대한전기협회와 한전, 그리고 전체 電氣人的 同意와 용기에 의하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추정한 경북중의 시등일은 이미 學界 일부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명확한 기록에만 집착한다면 ‘推定’을 전제로 하여 제정하는 길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電氣의 紀元을 이미 1887년으로 설정하고서도 전기의 날만은 1900년으로 후퇴시킨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은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다.